

‘책로 희망나눔’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광주용봉점 24일 책 나눔 행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꿈을 잊지 않는 어린이들의 꿈을 함께 응원하는 행사가 열린다. 마음을 더하고 싶은 이들은 책장에 꽂아 둔 책, 한번 읽고 다시 안보게 되는 책들이나 오랫동안 듣지 않은 CD를 기증해도 좋고, 누군가가 기증한 물품을 구매해도 좋다.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광주용봉점이 오는 24일(오전 10시30분~오후 7시) 개점 8주년 맞이 책 나눔 행사 ‘책 나와라 똑딱! 꿈 나와라 똑딱!’ 행사를 연다.

지난 2007년 화인테크의 공간 기증과 미래에셋 후원, 광주 시민들의 책 주주 캠페인으로 문을 연 헌책방 광주 용봉점은 지금까지 62만점의 책과 음반 등을 기증받아 총 8억 5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구매 고객은 8만명이다.

지난해 7주년 행사를 통해 핸드볼 특기생 홍보 군과 헤어디자이너가 꿈인 김 모양의 꿈을 지원했던 헌책방 용봉점은 올해는 북구 지역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 3명을 선정, 판매 수익금을 전달한다.

특히 올해는 북구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책을 기증해 눈길을 끈다. 태봉·용주·삼각초등학교 재학생과 교사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2000여권의 책을 모아 헌책방에 기증했다.

이번 ‘나눔’에는 많은 이들이 힘을 보탰다. 사학연금공단은 ‘희망을 서(書)로

태봉·용주·삼각초 학생 교사

책 2000여권 모아 기증

사학연금공단·광주일보 동참

저소득층 3명에 수익금 전달

나눔’ 행사를 통해 모집한 책을 기증했고 오랫동안 함께 해온 미래에셋 호남지역본부도 어김없이 힘을 보탰다. 또 바람개비도서관과 수년 동안 꾸준히 아름다운 가게에 책을 보내고 있는 광주일보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전 11시 기념식이 열리며 헌책방 용봉점을 늘 도와주는 이들의 기증 물품과 예술품, 손공예품을 판매하는 나눔 바자회도 열린다.

헌책방 용봉점 신예정 간사는 “올해 행사는 나눔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3곳의 어린이들이 함께 모은 책을 기증해 준 점이 의미있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책을 구입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헌책방 용봉점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셋째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책방음악회’를 열고 있다. 문의 062-514-897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광주 용봉점에 기증하기 위해 책을 직접 운반하는 광주 용주 초 어린이들.



지난해 열린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광주용봉점 7주년 기념 책나눔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운영진.



여수 안산치안센터에 문을 연 ‘문화 파출소-여수’가 진행하는 우쿨렐레 프로그램에 참가한 수강생들.

파출소, 문화 사랑방 변신

여수시 학동 안산치안센터 새 이름 ‘문화 파출소-여수’

공예·성악·무용·악기 등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파출소가 멋진 문화 사랑방으로 변신했다. 우쿨렐레와 무용을 배우고, 소품을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여수시 학동 안산치안센터는 지난 1월 ‘문화 파출소-여수’로 새로운 이름을 달았다. ‘문화파출소’는 지역 유휴공간인 치안센터를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모두 9곳이 조성됐다.

‘문화파출소-여수’는 전남 지역 유일한 문화 파출소로 개소 이후 1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지역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문화파출소-여수’에는 감성소품 DIY&리폼(공예), 내인생의 심팔번(성악), 도전 댄스킹(무용), 여수푸른빛 우쿨렐레(악기), 우리동네 어린이공작단(통합), 연필초상화(미술), 나는 좋은 엄마일까요(심리치유) 등 총 18개의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참여 주민은 총 93명이며 어린이부터 60대가 참가자의 연령대도 다양하다.

‘내인생의 심팔번’과 ‘여수푸른빛 우쿨렐레’, ‘통기타와 함께하는 낭만여행’ 프로그램은 단연 인기다. ‘내 인생의 심팔번’에는 40~60대 6명이 모여 성악을 배우고 있으며, 지난 5월 26일 주민자치 프로그램 ‘음악이 흐르는 파출소’ 음악회에 출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문화관광재단 이다롱 문화보안관은 “문화파출소에서는 평상시에는 여수 안산 치안 센터로 파출소 업무가 수행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날엔 문화보안관과 경찰관이 상주, 주민들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수강료는 전액 무료며 7월 14일까지 운영되는 1기에 이어 2기 프로그램은 8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참가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act.or.kr)와 재단 문화예술교육팀(061-921-5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을 만나다’

내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10회 정기연주회 ‘관·현·악(管·絃·樂)을 만나다’가 2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최원록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다양한 국악 창작 음악을 만날 수 있는 무대다.

공연의 첫 무대는 2013 ‘ARKO 한국 창작음악제’ 선정곡인 작곡가 이귀숙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1900년 파리, 그곳에 국악 그리고 2012’이 연다. 이어 통소연주자 최민의 연주로 통소협주곡 ‘풍전산곡(風傳山曲)-바람이 전해준 산의 노래’가 공연된다. 두곡은 광주에서는 처음 연주되는 곡이다.

이어 가야금협주곡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협주곡-푸른사막의 여정’을 최민정(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의 협연으로 감



최원록



안연섭

상하며 이영애 명인(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이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를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진 가야금병창으로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안연섭(시립국악관현악단 차석단원)이 협연하는 모듬북 협주곡 ‘타(TA)’가 장식한다.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go.kr) 예매. 문의 062-512-53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사업단’ 전국학술대회

23일 ‘산·하와 지역어문학 연구’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사업단’(단장 신해진·국어국문학과 교수)이 23일(오전 9시30분) 전남대 G&R Hub에서 제4회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소장 김동근·국어국문학과 교수), 전남대 인문학연구소(소장 신해진)와 공동으로 여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산(山)·하(河)와 지역어문학 연구’이다.

부산대 임주탁 교수가 ‘지역 산하(山河)를 향어(鄉語)로 노래하기와 화어(華語)로 노래하기’를, 강원대 남기택 교수가 ‘장소 상징으로서의 산하, 그리고 지역문학’을, 전남대 조경순 교수가 ‘산 관련 관용표현의 의미론적 분석’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표를 한다.

이와 함께 ▲‘대한매일신보’ 소재 가사에 드러난 여성성 형상화 연구(신송·전남대) ▲5·18 시의 무당산 로컬리티(김민지·전남대) ▲백두산·장백산의 사용 양상과 언어태도와의 상관성(랑빈·전남대·국어학) ▲신문 텍스트를 통한 해방공간에서의 상황성 연구(이윤희·충남대) 등의 분과발표가 이어진다.

이번 전국학술대회는 BK21플러스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대학원생들의 연구 지평을 확대하고 지역어 기반의 문화까지 창출을 위한 새로운 연구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단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자 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지역어 기반 문화까지 연구의 활성화 및 현장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062-530-023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황재형 예술캠프’ 참여자 모집

8월1~10일 이론·실기 교육

광주시립미술관은 태백미술연구소를 운영 중인 황재형 작가가 참여하는 여름 예술캠프(8월1~10일) 참여자를 모집한다.

황재형 예술캠프는 예술론의 비판과 해석, 조형론 등 이론 교육과 실기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 작가와 태백미술연구소 연구원 10여명으로 구성된 강사진들은 답사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채로운 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강사들은 수강생 전원이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질문과 조별토론과 개인지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총 50명으로 30명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20명은 유·초·중·고·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7월3일부터 광주시립미술관 교육창작지원과에서 선착순으로 전화 접수한다. 접수·문의 062-613-71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향동 전통음식 그리고 최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